

## 야고보서 5:7-20에 대한 ‘담화 분석’ —“고난을 견디어 내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sup>1)</sup>—

유지운\*

### 1. 서론

오랜 동안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다양한 격언과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논리적인 문학적 구조를 갖지 않는 ‘명언 모음집’(anthology)처럼 여겨왔다.<sup>2)</sup>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비록 학자들마다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야고보서가 서신 안에서 문학적 연결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sup>3)</sup> 야고보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

\*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명지대학교 교목. [jwyo0115@gmail.com](mailto:jwyo0115@gmail.com).

- 1) 본 논문은 제 13회 한국 신약학회 콜로키움(2014년 7월 5일, 강동 온누리 교회)에서 저자가 발표했던 발표 원고를 논지의 명료성, 방법론적 타당성, 그리고 표현의 적합성 측면에서 수정, 편집, 보완한 논문임을 밝힌다.
- 2) 대표적으로 디벨리우스(Martin Dibelius)와 같은 학자는 야고보서의 문학 장르를 ‘도덕적 권고/교훈’(paraenesis)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야고보서의 취사 선택적 특징과 연속성의 부재를 서신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디벨리우스가 야고보서 안의 많은 문학적 연결성(coherence)을 포착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 최근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or text-linguistic analysis) 및 수사학적 비평(rhetorical criticism) 방법들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조, Martin Dibelius, *Jame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Hermeneia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76), 3-7.
- 3) 참조, Luke T. Johnson, *The Letter of James*, Anchor Bible 37A (New York: Doubleday, 1995); David M. Rhoads, “The Letter of James: Friend of God”,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25 (1998), 473-486; Patrick J. Hartin, *James*, Sacra Pagina 14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3); Mark E. Taylor and George H. Guthrie, “The Structure of James”, *CBQ* 68:4 (2006), 681-705; Ernst R. Wendland, “The Drama of James: The oral performance of a NT epistle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ors, with special reference to James 2:14-26” (Sibiu, Romania: the 62nd Meeting of the SNTS, 2007.7.31.-8.3.), 1-52; 야고보서의 문학적 일관성에 주목한

해를 공고히 하는 데에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or text-linguistic analysis)이 수사학적 비평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이란 용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본문-언어 분석’을 통한 ‘담화 분석’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다.<sup>4)</sup>

특히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본문은 서신의 결론 부분(약 5:7-20)이다. 이 결론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본문 바로 앞에 전개되었던 다른 ‘담화들’(discourses)과 연관성이 없는 많은 명령형 권고들의 단순 모음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학 비평적 한 관점으로부터 볼 때, 야고보서 5:7-20은 야고보서의 궁극적 목적을 담지하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권고들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서신을 효과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본문 바로 앞의 담화들에서 ‘부자들’에 대한 혹독한 비평이 주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 결론 부분은 청중들을 향해 다음의 두 도전적인 질문들에 대답한다고 볼 수 있다: 1. (그렇다면) 심판과 구원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 (그렇다면) 현재 겪는 고난(억압)을 견디면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야고보서 5:7-20은 서신 작성자의 ‘흠어진 열 두 지파’를 향한 궁극적 목적—진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중들에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성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수평(평화)적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고난의 상황을 견디어 낼 것을 권면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야고보서 전체와 특별히 결론 부분을 다룰 때 이른바 ‘위로부터 아래로’(top-down approach) 방식을 취할 것이다.<sup>5)</sup> 우선 주제별로 서신 안의 각 단락들을 분석하면서 논지가 전개될 때 엄격하게 연역적이지는 않

국내 연구서로는 참조, 이승호, 『야고보서』,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 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이승호, “야고보서에 나타난 교회의 세속성 문제”, 『신약 논단』 21:1 (2014), 233-265.

4) ‘담화 분석’의 정의에 대하여는 참조, Joel B. Green, “Discourse Analysi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Joel B. Green ed., *Hearing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175-178. 바울서신에 대한 ‘담화 분석’에 대하여는 참조, John D. Harvey, *Listening to the Text: Oral Patterning in Paul’s Letter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 ‘담화 분석’을 통해 얻는 통찰력들에 관하여는 참조, Jeffrey T. Reed, “Identifying Theme in the New Testament: Insights from Discourse Analysis”, Stanley E. Porter and D. A. Carson, eds., *Discourse Analysis and Other Topics in Biblical Greek*, JSNT Supplement Series 1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5-76, 100-101.

5) ‘위로부터 아래로’ 방식이란 우선적으로 한 문학작품 전체의 윤곽을 그리고 그 다음 특정한 단락에 대해 다른 단락들과의 연결점들에 초점을 맞추며 면밀한 읽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David A. 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5), 192-193.

지만 그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신 후반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그다음 야고보서 5:7-20에 대한 분석에서 필자는 이 단락이 교차대 구 기법(chiasm)과 병행기법(parallelism)에 기초한 문학적 통합성(integrity)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7-20이 서신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그것의 언어적, 수사적, 그리고 구전적(oral/aural) 특징들에 초점을 두며 단락 별로 주석을 할 것이다.

## 2. 본론

### 2.1. 야고보서 안에서 주제의 전개 과정[거시적 분석]

#### 2.1.1. 야고보서 1:1

야고보서의 서두는 고대 편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말하는 이(야고보)와 듣는 청중들(흩어진 열 두 지파)을 식별하게 해준다. 그러나 바울서신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감사 표현들과 서신의 결론 부분의 작별인사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sup>6)</sup> 야고보서 1:1은 청중들에 대한 정황적 특성을 ‘흩어진 열두 지파’(ταῖς δώδεκα φυλαῖς ταῖς ἐν τῇ διασπορᾷ)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기술한다. 이에 더하여 ‘기뻐하라’(χαίρειν)는 명령어는 분명한 ‘희망’의 상황 위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본고의 주요 관심 부분인 결론 부분(약 5:7-20)의 희망적 정황과 연결된다: ‘주님의 오심’(약 5:7, 8). 또한 하틴(Patrick Hartin)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그 저자를 ‘야고보’라고만 할 뿐 더 이상 저자의 정체성에 대해 부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은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와 연관시키게 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7)</sup> 이와 같이 야고보서의 첫 절은 서신의 전반적인 정황과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 2.1.2. 이중 도입(약 1:2-12/1:13-25)

##### 2.1.2.1. 야고보서 1:2-12(‘인내를 통한 완전함’)

첫 도입 부분에서 저자는 ‘인내를 통한 완전함’이란 주제를 보여 준다(약

6) 이것은 학자들 간에 야고보서의 장르 구분을 달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학자들의 다양한 입장들은 대략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서신(letter), 도덕적 권고(paraenesis), 혹평(diatribe), 논지와 논증을 갖는 도덕적 권고(protreptic discourse). 야고보서의 장르와 목적에 대하여는 참조, Patrick J. Hartin, *James*, 10-16.

7) 야고보서 특유의 저자의 권위를 세우는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Ibid.*, 51.

1:2-12). 이 부분에는 서로서로 고립되어 있는 인상을 주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완전함’, ‘유혹/시험을 견디어 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않음’, 그리고 ‘부유한 자와 낮은 자’. 본고의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 단락의 문학적 통일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집중 관심 부분인 결론 부분의 문학적 분석을 통해 짜임새 있는 야고보서의 문체를 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것이다. ‘시련을 견디어 냄을 통한 완전함’이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의심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구하기’, ‘이중 마음’, 그리고 ‘부유한 자와 낮은 자’에 대한 진술들은 ‘하부 주제’로서 기능하면서 핵심 주제를 보완해 준다. 이렇게 볼 때 ‘인내를 통한 완전함’이라는 주제가 첫 도입 부분 담화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교차대구 기법이 작동하고 있고 그 안에 병행기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 2.1.2.2. 야고보서 1:13-25(‘완전해지기 위해 심겨진 말씀을 받는 것’)

다음 담화에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다른 주제들을 다룬다: ‘유혹의 이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완전한 선물의 근원’, ‘말하기’, ‘행하기’,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 이것들 역시 조각조각 파편처럼 흩어진 내용들로 보인다. 하지만, 본문에 대한 면밀한 읽기를 통해 야고보서 1:13-25가 문학적으로 잘 디자인되어 있는 구조로 그 안에 교차대구 기법과 병행기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8)</sup> 이 두 번째 도입 부분은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욕망으로부터 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악한 욕망은 사람을 엮어매고, 죄를 짓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sup>9)</sup> 대조적으로 변함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완전한 선물들을 허락하신다. 이 선물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세상으로부터 기원하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8) 역시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를 규명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향후 야고보서에 대한 보다 다양한 문학 비평적 연구들을 통해 다루어질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단락에 대한 자세한 문학적 구조 이해는 다음의 미간행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David M. Rhoads, “The Letter of James (Structure)” (Unpublished graduate seminar paper,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2-3.

9) 로즈(David M. Rhoads)는 통찰력 있게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욕망이 죄로 이끌려질 필요는 없다. 만일 사람이 무언가가 부족하면, 그들은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1:5). 그러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 유혹과 죄가 뒤따르게 된다.” 참조, David M. Rhoads, “The Letter of James: Friend of God”, 476.

유함으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는 것이다.<sup>10)</sup> 은유함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단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의 방식과 연결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의 청중들에게 그러했을 것이다.<sup>11)</sup> 중요한 것은 이들 주제들이 야고보서의 본론 부분(약 2:1-4:12)에서 다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번째 도입 부분 담화는 선행하는 주제를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서신 본론의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주제별 분석에서 필자는 각 담화 단락들 안에 나타나는 주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자체적으로 ‘상호 엮임’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전체로서 논지가 한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 2.1.3. 본론 부분(약 2:1-11[inclusio, 2:12-13]/2:14-26/3:1-12/3:13-4:10[inclusio, 4:11-12]/4:13-5:6)

#### 2.1.3.1. 야고보서 2:1-11(‘차별하지 말것!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에 따라 말씀을 행하기!’)

본론 부분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야고보서 1:19-25와 1:26-27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12)</sup> 야고보서 2:1-11은 ‘차별/편애’라는 이슈를 다룬다. 여기서 ‘차별/편애’는 ‘순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영성)’(1:27)와 대조되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행함’과도 대조된다.<sup>13)</sup> 야고보

10) 케네트 톨레프슨(Kenneth D. Tollefson)은 야고보서의 변증법적 담화 스타일을 강조한다. 즉 야고보서는 은유함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적인 인색함/동기의 비순수성/사악함 등을 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조, Kenneth D. Tollefson, “The Epistle of James as Dialectical Discourse”, *Biblical Theology Bulletin* 27 (1997), 65.

11) ‘심겨진 말씀을 받기’와 ‘말씀을 행하기’ 사이의 이러한 밀접성은 연결 접사  $\delta\epsilon$ (그러나)의 사용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결 접사는 앞 선 주제와 후속하는 주제를 역접의 방식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 접사  $\delta\epsilon$ 는 후속하는 단락을 새로운 어떤 것 혹은 차이가 나고 뚜렷한 어떤 것으로 만든다. 참조, Stephen H. Levinsohn, “Some Constraints on Discourse Development in the Pastoral Epistles”, Stanley E. Porter and Jeffrey T. Reed, eds., *Discourse Analysis and the New Testament: Approaches and Results*, JSNT Supplement Series 17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320-321.

12) 여기에서 저자가 얼마나 주의 깊게 본론 부분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약 1:19-25가 전체 서신의 본론 부분(2:1-5:6)과 주제들에 의한 상호 밀착성을 갖고 있다면, 약 1:26-27은 ‘말하기’와 ‘행하기’의 문제(2:1-3:12)에 대한 특정한 집중을 보여 준다. 이것은 야고보서의 ‘상호-엮여진 담화’(interwoven discourse)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13) 약 1:26-27은 약 2:1-3:12의 내용들을 뒤집어진 순서로 요약하고 있다. 약 1:26-27이 우선 허의 통제의 문제를 기술하고 그 다음 말씀을 행하는 것—‘약자를 돌보는 것’과 ‘자기 자신을 세속

서 2:1-11에서 저자는 ‘말씀을 행함’이라는 이슈를 다루는데 정황적으로 구체화된 차별의 예를 통하여 그리한다.<sup>14)</sup>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생각은 같은 단어들의 반복을 통해 첫 도입 부분(1:2-12)과 연결점을 갖게 되고, 그것은 또한 청중들의 삶의 정황의 윤곽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저자는 부자들의 세속적 권력과 청중들의 부자들을 향한 편애(favoritism)를 혹독하게 비판한다(2:5-7).<sup>15)</sup> 부정 의문문들의 사용이 야고보서 2:5-7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부분이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특정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도록 하는 수사적 함의를 수반함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2:8-11에서 ‘최고의 율법’(royal law)이란 주제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의 담화(1:19-25)에서 언급되었었다. 여기에서 논지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고, 문자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에 의해 심판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행하는 것(2:12-13)을 말한다. 야고보서 2:12-13은 4:11-12와 함께 한 중요한 인클루지오(inclusio)를 형성한다.

요약하면 전반적인 주제는 ‘인내를 통한 완전함’에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로 이동하고 있고, 후자는 또한 야고보서 2:12-13에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을 행함’이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 2.1.3.2. 야고보서 2:14-26(‘말씀을 행하라!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숙고하라!’)

야고보서 2:14-26에서 저자는 ‘행함’을 강조한다. 저자는 ποίησις(행함, 1:25) 대신에 반복적으로 한 유사한 단어, 즉 ἔργον(‘일’, 2:14, 17, 18, 20, 21, 22, 24, 25, 26)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sup>16)</sup> 야고보서 2:2-4

---

으로부터 지키는 것’—의 문제를 기술하는 반면에, 후자 즉 ‘말씀을 행하는 것’이란 주제가 약 2:1-3:12에서는 더 먼저 나오는 뒤집혀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참조, Peter H. Davids, *The Epistle of Jam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MI: Eerdmans, 1982), 100-104.

- 14) προσωποληψία(차별, 2:1)와 προσωποληπτείτε(편애/차별을 보여주다, 2:9)는 ‘인클루지오’(inclusio)를 형성하면서 약 2:1-11을 한 담화 단위(discourse unit)로 만들어 주고 있다.
- 15) 세속적 권력에 대한 반대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서신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약 4:1-10 부분과 연결점을 갖는다. 약 4:1-10에서 청중들은 세상과의 친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요청 받고 있다. 톨레프슨은 이와 같은 변증법적 담화의 특징이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참조, Kenneth D. Tollefson, “The Epistle of James as Dialectical Discourse”, 64-66.
- 16) 이 단락에서 ἔργον(일)의 만연한 사용은 이전 ‘행함’ 담화들과 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 단락은 일상생활에서의 더욱 실용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담화들과 구별된다. 한 예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에서와 같이 한 짧은 ‘에세이’가 다시 한 번 나타난다(2:15-16). 이 에세이에 서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들과 또한 그들을 향한 삶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한 자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다루는 야고보서 2:2-4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삶의 태도를 다루는 2:15-16은 주제 면에서 서로 대비되고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세이’의 반복적 사용은 두 담화들에 존재하는 논지 전개 방식에 있어서의 상호 밀착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야고보서 2:14-16은 τί τὸ ὄφελος(무엇이 유익이냐?)라는 인클루지오(inclusio, 2:14, 16)에 의해 한 작은 단위 단락을 이루고 있다. 이 단위 단락 안에 두 개의 뚜렷한 ἐάν 조건절과 두 개의 암묵적 ἐάν 조건절이 나타나고 있다.<sup>17)</sup> 야고보서 2:14-16에서 수사어문문을 통해 단위 단락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τί τὸ ὄφελος[무엇이 유익이냐?])은 2:1-4에서 수사어문문이 단락을 시작하고 끝맺는 것과 유사하다. 이 외에도 매우 주의 깊게 고안된 절이 야고보서 2:18에서 포착된다: σὺ πίστιν ἔχεις, κἀγὼ ἔργα ἔχω(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나는 또한 ‘행함’을 갖고 있다.). 이 짧은 문장 안에서 한 분명한 병행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이어서 야고보서 2:18b는 준-병행 문장구조를 보여 준다: δεῖξόν μοι τὴν πίστιν σου χωρὶς τῶν ἔργων, κἀγὼ σοὶ δείξω ἐκ τῶν ἔργων μου τὴν πίστιν(‘행함’이 없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러면 나는 행하는 일들로부터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두 명의 구약성서 인물의 예들(아브라함과 라합)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론 부분(5:7-20)에서 욥과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과 유사점이 있다. 요약하면, 야고보서 2:14-26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분명한 문학적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살펴본 것처럼 교차대구 기법, 병행기법, 그리고 인클루지오 등을 문학적 장치로 사용하면서 ‘말씀을 행하라’는 것을 강조한다.

### 2.1.3.3. 야고보서 3:1-12(‘혀 사용에 대한 연설’: 올바르게 말하기!)

저자는 ‘행함’이라는 이슈를 ‘말하기’라는 주제로 전환시킨다(3:1-12). ‘말하기’의 주제는 야고보서 1:19, 26에서 간략히 언급되었고, 2:1-13에서 암묵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야고보서 2:12-13과 3:1-12는 상응하는 관계에 있는데, 두 부분 모두 ‘말하기’라는 주제를 ‘종말론적 심판’의 정황 하에서 다루고 있다.<sup>18)</sup>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서 2:14-26과 3:1-12 사이에

17) 약 2:2-4와 2:15-16 모두에서 저자는 ἐάν으로부터 시작되는 제2유형(급)의 가정적 조건 문장을 사용하고 있고, 조건절(protasis)에서는 가정법 동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야고보서 안에서 ἐάν의 첫 사용(2:2-4)은 제1유형(급)의 조건절 접속사 εἰ(사실의 문제로서의 조건)의 사용이 약 1:5, 23, 그리고 26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ἐάν의 두 번째 사용(2:15-16)은 약 2:8, 9, 10에서 조건절 접속사 εἰ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밀착성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야고보서 3:1-12는 바로 앞 선 담화보다 오히려 멀리 떨어진 담화와 더 연관이 된다는 점인데, 이는 야고보서가 ‘상호 엮임’(interwoven)의 특성을 갖는 담화임을 뒷받침 해준다.<sup>19)</sup> 저자는 혀를 통제하는 일의 필수성과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 혹은 일상생활의 비유들을 사용한다: 야고보서 3:3(말 입의 재갈), 3:4(바다의 배), 3:5a(큰 숲을 태우는 작은 혀), 그리고 3:5b-7(숲 속의 불). 이러한 비유들은 야고보서 1:6(바다의 파도와 바람)과 1:11(들꽃의 꽃)의 자연 비유를 떠올리게 한다.<sup>20)</sup> 또한 야고보서 3:6의 수수께끼 같은 어구는 1:13-15에 나타나는 죄의 발전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sup>21)</sup> 끝으로 야고보서 저자는 비유들로부터 1인칭으로 진술되고 있는 좀 더 담론적인 수사로 이동한다: 야고보서 3:5-8로부터 3:9-12로.<sup>22)</sup> 간략히 하면, 야고보서 3:1-12에서 저자는 개인적 말하기/가르치기의 정황의 기초 위에서 인간의 혀를 통제하는 것에 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 ‘올바르게 말하기’라는 주제가 강조된다.

#### 2.1.3.4. 야고보서 3:13-4:10(‘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과 친구 됨’)

그 다음 단락인 야고보서 3:13-4:10은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고 또한 가장 핵심적인 단락으로 볼 수 있다. 저자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따라 말씀을 행하고 의롭게 말하는 삶의 기본적인 양식을 강조하고 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 야고보서 3:13-18에는 ‘하늘과 땅’의 논법이 나타나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의 지혜를 암

18) 참조, Mark E. Taylor and George H. Guthrie, “The Structure of James”, 696. 이 종말론적 정황은 또한 결론 부분(약 5:7-20)과도 연결된다.

19) 로버트 월(Robert W. Wall)은 또 하나의 관측을 제시한다. 즉 약 3:1b-2a에 나타나는 ‘완전한’과 ‘전체의’의 단어 조합은 약 1:4에서의 두 단어의 조합과 상응한다는 점이다: ‘완전한-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몸 전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그는 또한 ‘주’(Lord)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에서 야고보서 저자는 종말론적 의미를 그의 권고 내용 안으로 들여온다고 주장한다. 참조, Robert W. Wall, *Community of the Wise: The Letter of James, The New Testament in Context*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7), 164-165.

20) 이러한 일상적 비유들의 그림 이미지들은 약 5:7-20의 자연 비유들과도 상응한다. 추가적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혹은 전체)으로 이동하는 것의 함축된 의미는 약 5:19-20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1) 이것은 또한 약 5:19-20과도 영혼을 구원하는 주제에 관련한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통제되지 않은 혀의 발전 과정을 다루기 때문이다. 참조, Ibid., 170-171.

22) 1인칭 복수 동사가 약 3:9에서만 두 번 사용된다. 하지만 그것은 저자의 주제적 발전이 좀 더 인격적인 측면을 포함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이 인격적 측면은 논지를 저자의 목회적 관심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결론 부분(5:7-20)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 기여한다. 참조, Ibid., 173-177.



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살짝 다른 논법-세상과의 친교와 하나님과의 친교-이 다음 담화 단위인 야고보서 4:1-10에 나타난다.<sup>23)</sup> 이 전체 단락에서 저자는 두 대립하는 입장을 극명하게 대조시킨다: 즉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 저자의 관심은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이전된다. 이는 곧 동시에 아래로부터 오는 땅의 지혜, 곧 세상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야고보서 3:13과 4:1의 수사적문문의 중요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단락 안에 몇 개의 연결단어들(hook words)이 또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형용사 μικρόν(맛이 쓴, 3:11, 14)이 현 단락과 이전 단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명사 σοφίας(지혜, 3:13)가 야고보서 1:5에서 나왔었는데 다시 나타나면서 야고보서 첫 도입 부분과 연결된다.<sup>24)</sup> 특별히 이 단락에서 ‘지혜’ 용어는 현 단락을 두 도입 부분 담화들과 연결시킬 뿐 아니라 저자의 논지를 야고보서 4:1-10을 경유하여 결론 부분 담화들(4:13-5:6과 5:7-20)을 향해 진전시키기 위한 기초를 설정한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저자가 논지를 결론 부분 담화들로 전개시키기 위해 야고보서 4:6을 바로 여기 ‘전환 및 핵심 단락’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들을 대항하시지만 (4:6b)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4:6c)”. 우선, 야고보서 4:7-8에서 명령문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야고보서 4:6c에 나타나는 ‘낮은 자들’에 대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sup>26)</sup> 그다음, 야고보서 4:9-10에 명령문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4:6b에서와 같이 오만한 자들에

23) 톨레프슨은 약 3:13-4:10에 변증법적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지적한다. 그에게 있어 변증법의 의미는 한 쪽 기둥을 붙잡고 동시에 다른 한쪽은 버리는 것을 암시한다. 참조, Kenneth D. Tollefson, “The Epistle of James as Dialectical Discourse”, 65-66.

24) 테일러(Mark E. Taylor)와 거쓰리(George H. Guthrie)는 ‘지혜’ 용어가 야고보서에 두 번 밖에 나오지 않지만, 지혜 개념이 전체 서신에 대한 해석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혜’ 용어가 서신 도입 부분(1:2-12)과 핵심 전환 부분(3:13-4:10)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며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참조, Mark E. Taylor and George H. Guthrie, “The Structure of James”, 697.

25) চেউ(Luke L. Cheung)은 진리의 말씀/심겨진 말씀과 지혜 사이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출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미 청중들이 받아들인 것인 반면에 ‘지혜’는 그들이 계속해서(현재시제) 하나님께 요청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다.” 참조, Luke L. Cheung, *The Genre, Composition and Hermeneutics of James*, Paternoster Biblical and Theological Monographs (Carlisle; Waynesboro, GA: Paternoster Press, 2003), 138.

26) 분석의 편리를 위해 약 4:6을 여기서 세 부분(a, b, c)으로 나누어 고려하고 있다. 약 4:6의 중요 부분들은 4:6b와 4:6c인데 후속하는 결론 부분 단락들과 상응하고 있다.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sup>27)</sup> 이에 더하여 야고보서 4:13-5:6은 4:6b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고, 5:7-18은 4:6c를 떠올리게 한다. 결론적으로 ‘전환 및 핵심 단락’, 야고보서 3:13-4:10은 잘 구성된 내부구조를 보유할 뿐 아니라 저자의 논지를 결론 부분 담화들로 이끌어 가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1.3.5. 야고보서 4:13-5:6(‘오만한 자’들과 ‘부자’들에 대한 혹독한 비평)

야고보서 4:13-5:6은 본론의 끝 부분으로서 ‘부자’들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서 4:6b는 ‘부자’들에 대한 혹평을 위한 기초를 제공함을 보았다. 이 담화 단락은 우리에게 서신의 본론 부분(2:1-5:6)이 시작되었던 방식을 생각나게 해 준다: ‘부자’들에 대한 담화와 ‘부자’들을 향한 청중들의 태도(2:1-11). 두 절 모두 ‘부자’들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야고보서 4:6b와 4:16의 상호밀착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서신 안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지지만, 야고보서 4:14는 직접적으로 1:10-11에 나타나는 ‘부자’들에 대한 비유적 묘사와 관련된다. 그런가하면, 야고보서 4:13-17과 5:1-6 안에 유사한 문학적 구조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둘 모두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저자는 두 단락에서 ‘부자’들에 대항하는 저자의 혹평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한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 4:13-5:6은 단락의 담화적인 특성들을 내부적으로는 단락 안의 문학적 구조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전 담화들과의 문학적 밀착성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2.1.4. 이중 결론—야고보서 5:7-11/5:12-20(‘어떻게 다가오는 구원과 심판에 준비할 것인가?’/‘어떻게 인내로 견디며 공동체로서 살아갈 것인가?’)

다음 장에서 야고보서 5:7-20 단락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결론 부분 담화들에 대한 개괄적 성격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야고보서를 결론짓는 담화(discourse, 5:7-20)는 서신 도입 부분의 담화들(1:2-12/1:13-25)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중 구조를 형성한다. 도입과 결론 부분 모두는 서로서로 언어 및 주제적 특징들을 통해 많은 밀착성(coherence)을 보여준다.<sup>28)</sup> 이에 더하여 야고보서 5:7-20은 이전

27) 요약하면, 약 4:6-10은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A(4:6b)—B(4:6c)—B'(4:7-8)—A'(4:9-10).

28) 벤트랜드(Ernst R. Wendland)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접해 있는 주제들—즉 ‘너의 믿

담화들과 다양한 연결 관계들—단어, 주제, 논지 전개 방식, 및 ‘소리(음성)’적 밀착성—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내부 문학 구조면에서 결론 부분 담화는 많은 수사적 장치들에 의해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 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치들은 본문에 대한 면밀한 읽기를 통해 관측된다: 즉 단어, 문장, 및 단락별 면밀한 읽기.

### 2.1.5. 소결론

간략히 하면,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야고보서 저자는 그의 논지를 ‘인내를 통한 완전함’(도입 부분)—여기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강조한다—이란 주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율법에 따라 말씀을 행하기’(2:1-11), ‘말씀을 행함’(2:14-26), 그리고 ‘의롭게 말하기’(3:1-12)라는 주제로 이동시킨다. 그다음 야고보서 저자는 ‘전환 및 핵심 단락’(3:13-4:10)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중점을 둔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 저자에 따르면 이 두 요소들은 의로운 방식으로 ‘말하기’와 ‘행하기’ 모두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전환 및 핵심 단락’은 논지를 서신 결론 부분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 있어서 확고한 기초가 되고 있다. 특별히 야고보서 4:6은 다음의 주제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부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함’(4:13-5:6)과 ‘야고보서 청중들을 권고함’(5:7-20). 따라서 이러한 ‘상호 엮임’의 특성을 가지면서 목적을 가지고 진전해 가는 담화의 연장 속에서, 야고보서 5:7-20은 야고보서의 결론 단락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필자는 이 결론 단락에 대한 언어, 수사, 및 ‘소리’(음성)적 특성들에 집중하면서, 야고보서 5:7-20에 대한 미시적 분석으로 넘어가려 한다.

## 2.2. 야고보서 5:7-20에 대한 미시적 분석

야고보서의 결론 단락(약 5:7-20)은 문학 비평적 한 관점에서 볼 때, 두 개의 하부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다: 야고보서 5:7-12와 5:13-20. 이러한 두 하부 단락들이 파편적인 명령들의 단순한 모음들처럼 보이지만, 본문을 면밀

---

음을 점검하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고 인내를 실행하라!’ 그리고 ‘신실한 기도를 드리며 인내하라!’—이 서신 첫 부분(1:2-4, 5-8, 12)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서신 후반부(5:7-11, 5:13-18)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것은 확장된 이중 인클루지오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참조, Ernst R. Wendland, “The Drama of James: The oral performance of a NT epistle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ors, with special reference to James 2:14-26”, 14-15.

히 읽게 되면, 이 단락들이 구성된 문학적 특성들을 잘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하부 단락들은 교차대구 기법과 병행기법에 기초한 단락의 내적 통합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야고보서 서신 전체를 매듭짓는 일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야고보서 5:7-12를 통해 저자 야고보는 청중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구원’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청중들은 (짐작하건대) ‘부자들’에 의해 초래된 현재의 억압받는 상황을 희망적인 최종 ‘심판’을 기다리면서 “건디어 내라!”는 격려 섞인 권고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13-20에서 저자는 현재적 억압을 견디면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5:13-18에는 ‘기도’의 주제가 나타나고 5:19-20에는 ‘진리로부터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이란 주제가 나타난다. 둘은 모두 각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성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성을 반영한다.

우선적으로 필자는 야고보서 5:7-20의 문학적 내부 구조가 어떠한지를 보이고 난 뒤에, 이 결론 부분 담화가 전체 서신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언어, 수사 및 구전 적 특징들에 중점을 두면서, 야고보서 5:7-20에 대한 단락별, 단위별 주석을 할 것이다.

### 2.2.1. 야고보서 5:7-12의 구조<sup>29)</sup>

문학 비평적 한 관점에서 볼 때, 야고보서 5:7-12은 A-B-A'-B' 형식의 병행구조를 지니고 있다. 야고보서 5:7-8(단락 A)에 나타나는 ‘인내’라는 주제는 5:10-11(단락 A')에서 반복되는데, 구약 선지자들의 인내 그리고 유명한 구약 인물 ‘욥’의 인내에 초점을 두며 반복된다. 두 단락들(A와 A') 모두는 긍정적인 명령들로 시작한다. 두 단락들 사이에는 한 격언적인 말씀(5:9, 단락 B)이 나오고 이것은 야고보서 5:12(단락 B')와 상응한다. 두 단락들(B와 B') 모두 부정적 명령들로 시작하고 잠재적인 심판의 환경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상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야고보서 5:7-12에서 긍정 및 부정 명령들의 병행적인 반복이라는 독특한 이 단락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야고보서 저자는 단락 A(5:7-8) 안에서 그것의 형태와 내용들에 의해 a-b-b'-a'라는 교차대구 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소단위 단락 a-a'는 같은 긍정 명령, ‘인내하라’와 ‘주의 오심’이라는 유사한 표현들을 보유하고 있다.<sup>30)</sup> 이

29) 약 5:7-12의 문학적 구조에 대하여는 <부록 1>을 참조.

30) 참조, 약 5:7, μακροθυμήσατε(인내하라!)와 μακροθυῶν(인내하면서)이 각각 긍정 명령과 정

에 더하여 소단위 단락 b-b'는 유사한 내용들이 병치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기다리는 것’과 ‘인내하는 것’, 그리고 ‘땅으로부터의 소중한 열매’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땅’. 더구나 abb'a'는 그것들 각각의 하부-범주의 극소단위 ab를 보유하고, ab는 각각으로 현재와 미래적 함의를 갖는다. 이러한 점들은 저자의 논지가 얼마나 빠른 템포로 진전하고 있으며, 동시에 얼마나 ‘기술적으로’ 한 문학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10-11(단락 A')은 두 부분들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전반적으로 선지자들의 인내를 다루고 뒷부분은 옴의 특정한 예를 다룬다. 특별히 야고보서 5:11(A'(b))은 교차대구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a-b-b'-a).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12는 준-병행구조를 보유하고 있는데(a-b-c-a'-b'-c'), 그 안에서 부정 명령들이 강조되고 있다.<sup>31)</sup>

결론적으로 저자 야고보는 각 단위의 문학적 통합성과 이 단락(5:7-12)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교차대구 구조와 병행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자는 청중들에게 다가올 심판과 구원(매우 가까이와 있는)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재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라고 매우 효과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권고하고 있다.

### 2.2.1.1. 야고보서 5:7-8(단락 A)

종속 접속사(οὖν, 그러므로)는 뒤따르는 단락이 이전 단락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즉 이전 단락에서 저자가 ‘부자’들을 혹평한 것에 대한 하나의 결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 단락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사치스럽게’ 살았다(4:13-5:6); 2. 그들은 ‘마지막 날들에’ 그렇게 행했다. 이제 야고보 저자는 이전 담화보다는 부드럽지만 여전히 강한 어조를 띄면서, ‘부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청중을 향해 그들의 삶의 방식 쪽으로 권면의 초점을 돌려놓는다.

단락 A에서 저자는 ‘인내하라!’는 권면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음성적 효과’를 포함하는 수사적 장치들을 운용한다. 긍정의 아오리스트 명령(μακροθυμήσατε)이 두 차례 병행적인 방식으로 야고보서 5:7-8에서 사용된다. 야고보서 5:7에서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ἕως τῆς παρουσίας τοῦ

---

황적 분사(양식/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분사)로 기능하면서 각 단위 첫 부분에 나타난다. 또한 ἕως τῆς παρουσίας τοῦ κυρίου(전치사 구, ‘주님이 오실 때까지’)와 ὅτι ἡ παρουσία τοῦ κυρίου ἤγγικεν(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종속절, ‘주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상응한다.

31) 비록 이 단위 안에 긍정 명령도 있기는 하지만, 절의 선두에 위치해 있고 2인칭 명령의 직접적인 특성을 가진 ‘맹세하지 마라!’는 부정 명령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κυρίου, 주께서 오시기까지)가 같은 절 안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나타난다: ἕως λάβῃ πρόϊμον καὶ ὄψιμον(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을 때까지).<sup>32)</sup> 또한 상호 연결되는 방식으로 τῆς παρουσίας τοῦ κυρίου가 약간의 변화된 형태로 야고보서 5:8에 나타난다: ἡ παρουσία τοῦ κυρίου.<sup>33)</sup>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7에는 한 그림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땅으로부터 소중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의 이미지이다.<sup>34)</sup> 더구나, 야고보서 5:7에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on’ 소리를 압축적으로 반복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ἰδοὺ ὁ γεωργὸς ἐκδέχεται τὸν τίμιον καρπὸν τῆς γῆς μακροθυμῶν ἐπ’ αὐτῷ ἕως λάβῃ πρόϊμον καὶ ὄψιμον. 이 같은 ‘on’ 소리 효과를 수반하는 그림 이미지는 청중들이 저자의 ‘인내하라!’는 권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돕는다. 요약하면, 단락 A에서 저자는 ‘인내’와 ‘주의 오심’이란 개념의 반복적 언급, 인내와 관련한 생생한 농부의 이미지, 그리고 ‘음성 효과’ 등을 통해서 청중에게 ‘인내하라’는 권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2.2.1.2. 야고보서 5:9(단락 B)

야고보서 5:9에서 저자는 자신의 ‘에토스’(품위/품격)를 고양시키면서 청중들에게 권고한다. 권고의 내용은 ‘의로운 말하기’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 가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선 저자가 ‘격언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sup>35)</sup> 이 격언의 말씀은 저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는데, 저자가 현재 주제인 ‘인내’와 ‘의로운 말하기’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상호-텍스트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 때문이다.<sup>36)</sup> 하틴에 따르면,

32) ‘ἕτερός(비)’ 단어가 생략(elision)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절을 보다 리드미컬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갖는다. 모음 소리 ‘on’의 반복은 또한 이전 단락과 다른 새로운 음성적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on’ 소리의 반복에 대해서는 약 5:7을 참조: “...τὸν τίμιον καρπὸν τῆς γῆς μακροθυμῶν ἐπ’ αὐτῷ ἕως λάβῃ πρόϊμον καὶ ὄψιμον.”

33) 약 5:7과 약 5:8은 같은 명령법과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연결되는데 이것은 이 단락의 전형적인 수사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두 절 사이에서 뚜렷한 정도는 조금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단어를 볼 수 있다: ἡγγικεν(가까이 오다) 그리고 ἔστηκεν(서 있다). 이 두 단어들은 완료시제 동사들로 똑 같은 소리를 내는 접미어를 갖고 있음도 포착된다: ~κεν. 또한 ‘지시 접사’인 ἰδοὺ(보라!)가 약 5:7과 약 5:11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34) 청중들은 저자가 자연에 관한 예들을 들 때 그림 이미지를 느꼈음이 틀림없다: 들, 꽃, 태양, 바다(1:1-12), 그리고 숲, 불, 바다, 배, 배의 키, 혀(3:1-12). 이에 더하여 본론 부분의 도입 및 결론짓는 ‘에세이’(2:1-11과 4:13-5:6) 또한 그림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보다 생생하게 ‘연설’(speech)을 경험하도록 해 준다. 그 외에도 약 2:15-16의 예와 같이 그림 이미지들에 연관되는 많은 예들이 있다.

35) 서신 전체를 통해 격언적 말씀들이 단락들을 구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 1:19; 2:12-13, 26; 3:12, 18; 4:11-12.

36) 참조, Ernst R. Wendland, “The Drama of James: The oral performance of a NT epistle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ors, with special reference to James 2:14-26”, 20.

στενάζω 동사가 다른 성서 책들에도 자주 나타나는데 야고보서 저자는 이 동사를 야고보서 5:9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37)</sup> 또한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은 야고보서 4:11-12와 연결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야고보서 4:11-12와 5:9에서의 ‘말하기’와 관련한 금지명령은 전체서신에서 ‘말하기’와 관련된 다른 언급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즉, 두 부분 모두 개인적 말하기를 넘어서서 집합적 공동체(collective assembly)를 세워가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단락 B에서는 또 하나의 그림 이미지가 나타난다. 문 앞에서 있는 재판관의 이미지인데,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심판이 ‘극도로 가까이’에 다가와 있음에 대한 강조이다. 심판자라는 단어(ὁ κριτής, 5:9b)가 사용되고 있는데 야고보서 5:9a에 ‘μὴ κριθῆτε’(심판받지 않도록)와 연결되면서 ‘심판’이라는 ‘환경’이 강조된다.<sup>38)</sup> 요약하면, 야고보서 5:9(단락 B)는 ‘의롭게 말하기’라는 삶의 방식에 대한 강조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저자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2.2.1.3. 야고보서 5:10-11(단락 A')

야고보서 5:10-11에서 저자는 선지자들과 욥을 인내의 구체적 예로 들고 있다. 선지자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음을 강조함으로써 야고보서 청중들을 선지자들의 모범을 따라 ‘행함’, 특별히 ‘(의로운)말하기의 실천’으로 이끌고자 한다(소단위 단락 a[ab]). 욥의 예는 고난에 대한 청중들의 인내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주님에 의해 초래되는 희망적 종말을 암시한다(소단위 단락 b[abb'a']). 단락 A와 다르게 저자는 희망적 비전과 더불어 인내를 강조하는데, 이 내용은 소단위 단락 b[abb'a']의 중심에 위치한다.

효과적인 청중과의 소통을 위하여 저자는 ‘음성 효과’를 동반하는 중요한 수사적 장치들을 사용한다. 일종의 ‘헨다이어드스’ 안에서 ‘모음 병행’(assonance)이 야고보서 5:10에 나타난다: τῆς κακοπαθίας καὶ τῆς μακροθυμίας.<sup>39)</sup> 이에 더하여 야고보서 5:11b에서 ‘인내’(τὴν ὑπομονήν)라는 단

37) 참조, Patrick J. Hartin, *James*, 243.

38) 약 5:11에서 τὴν ὑπομονήν(인내)의 사용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39) 로페스(James H. Ropes)는 ‘고통과 인내’라는 두 명사가 ‘헨다이어드스’를 만들어 내면서 ‘고난 속의 인내’로 이해될 수 있다고 적절하게 설명한다. 참조, James H. Rop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St. James*, ICC (Edinburgh: T.&T. Clark, 1954), 298. 여기에서 ‘모음 병행’(assonance)은 선행하는 단어의 모음 소리들과 인접하여 후속하는 단어의 모음 소리들 사이에 유사성 혹은 닮은꼴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한 용어

어가 문장 첫 머리에 나오면서 선행하는 명사적 용법의 분사 ‘인내하는 사람들’(τοὺς ὑπομείναντας)과 연결되면서 ‘인내’의 의미가 강조된다: “ἰδοὺ μακαρίζομεν τοὺς ὑπομείναντας· τὴν ὑπομονὴν Ἰωβ ἤκούσατε...” (약 5:11). 이러한 ‘음성 효과’들은 청중들에게 결론 부분의 담화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2.2.1.4. 야고보서 5:12(단락 B')

야고보서 5:12(단락 B')와 5:9(단락 B)는 부정 명령을 말하고 있고 심판이라는 정황설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병행구조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단락 B와 같이 단락 B'도 일종의 격언인데, 저자는 그것으로 청중들이 ‘의롭게 말하기’(5:9)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권고하고, ‘단순하게 말하기’(5:12)이라는 삶의 방식을 구비해 가도록 권고한다. 야고보서 2:12-13과 2:14-26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을 행함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의롭게 말하는 것’—너희의 ‘예’는 ‘예’,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의 단순성’을 암시한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이중성에도 반대되는 것이다.<sup>40)</sup> 이렇게 본다면, 야고보서 5:12는 혀 사용의 이중성이 철저하게 거부되고 있는 3:1-12와 연결됨을 알 수 있고, 이중으로 마음을 먹는 것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하는 1:2-12와도 문학적 연결성을 갖게 된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저자는 부정 대등 접속사(μήτε)를 세 번 사용하고 있다(polysyndeton).<sup>41)</sup> 이러한 μήτε의 사용이 부정 접사(μή) 사용과 함께 ‘me’라는 ‘음성 효과’를 만들고 문장을 리듬 있게 만들어 준다. 같은 절에서 한 병행 구절을 사용하는데 이 역시 같은 단어들의 반복을 통해 리듬을 자아낸다: τὸ ναὶ ναὶ καὶ τὸ οὐ οὐ(‘예’에는 ‘예’, ‘아니오’에는 ‘아니오’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5:7-12에서 저자는 ‘억압’이라는 청중이 처한 삶의 정황 속에서 ‘인내’를 필수적인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야고보서 5:7의 첫 머리에서 대등 접속사 οὖν(그러므로)을 저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위해서는 참조, Richard A. Lanham, *A Handlist of Rhetorical Terms: A Guide for Students of English Literatur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18.

40) 참조, Patrick J. Hartin, *James*, 263.

41) ‘폴리신데톤’(polysyndeton)은 ‘일련의 리스트 안의 각 항목 사이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사용’을 말한다. 연설에 강조점을 더해 주고 철저한 요약물 통해 확장성과 풍성함이라는 효과를 산출한다. 참조, David E. Aune,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New Testament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and Rhetoric*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367.



점에서, 5:7-12는 ‘그렇다면 다가올 심판과 구원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이자 청중들을 향한 권고라고 볼 수 있다.

### 2.2.2. 야고보서 5:13-20의 구조

이제 야고보서 저자의 전반적인 ‘인내’라는 권고(5:7-12)는 더욱 구체적인 권고들로 향한다. 야고보서의 최종 결론 부분은 ‘부자’들에 의해 초래된 ‘억압’의 상황을 견디어 내는 동안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핵심 항목을 제시해 준다: 1. 기도(5:13-14a, 단락 A) 그리고 2. 진리로부터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5:19-20, 단락 A'). 전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성을 그리고 후자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성을 강조한다. 이 단락에서 전체적으로는 교차대구 구조(A-B-B'-A')가 나타난다. 그리고 단락 A와 B는 그들 자체적으로 일종의 교차대구 구조를 보유하고, 단락 B'와 A'는 각각 준-병행 구조와 일종의 교차대구 구조를 보여준다. 저자는 각 단락과 서신의 결론 부분의 문학적 통합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러한 교차대구 구조나 병행구조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단락 A(5:13-14a)는 일종의 교차대구 정렬(a-b-a')을 포함한다. 그 안에서 의문문과 명령문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소단위 단락 a와 a'가 각각 고통당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의 측면에서 ‘기도’의 주제를 다루는 반면, 소단위 단락 b는 ‘기뻐하는 자’들의 측면에서 찬양을 부를 것을 촉구한다. 단락 B(5:14b-16)는 또한 기도와 그것의 효과를 교차대구 구조를 통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 준다: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와 ‘일으킴’을 얻게 됨’(소단위 단락 a)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상호 치유’(소단위 단락 a'). 동시에 단락 B는 ‘의롭게 말하기’의 또 다른 방식이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소단위 단락들 a(a-a')와 b(b-b')가 ‘기도와 그것의 효력’의 구조를 보여주듯이, 소단위 단락 a'(a-b)와 b'(a'-b') 또한 단락 B 안에서 똑같은 주제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단락 B'(5:17-18)는 단락 B와 병행관계를 보여준다. 단락 B' 안에서, 기도와 그것의 ‘긍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병치된다: a(a-b-c)와 b(a'-b'-c'). 끝으로 단락 A'(5:19-20)는 특별히 소단위 단락들(b-c-d-c'-b') 안에서 일종의 교차대구 구조를 보여준다. 그 밖에도 단락 A와 A' 사이에서도 문학적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단락 A'에서 ‘(진리로부터의)방황’의 개념은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심지어 기뻐하는 자들의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들은 청중으로 하여금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혹은 안락한 상황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만을 신뢰함으로써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동체를 지탱하고 세워갈 목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2.2.1. 야고보서 5:13-14a(단락 A)

야고보서 저자는 이 부분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부각시킨다. 기도와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성과 관련되지만, 야고보서 5:14a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수평적 관계성도 암묵적으로 나타난다: ‘(기도를 위해)공동체의 장로들을 부르는 일’. 저자의 청중을 격려하고자 하는 의지는 수사학적 장치들(‘음성 효과’를 수반하는)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 단락에서 2인칭 의문문과 3인칭 명령문이 같은 패턴으로 세 번 나타난다. 또한 저자는 보다 리듬감을 살리고 정감 있는 연설의 효과를 위하여 ‘아신데톤’(asyndeton)을 사용한다.<sup>42)</sup> 이 단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Κακοπαθεῖ** τις ἐν ὑμῖν, προσευχέσθω

(너희 중에 누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εὐθυμεῖ** τις, ψαλλέτω.

(기쁨 가운데 있는 누가 있느냐? 그로 하여금 찬양을 드리게 하라!)

**ἀ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

(너희 중에 누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느냐?)

προσκαλεσάσθω τοὺς πρεσβυτέρους τῆς ἐκκλησίας

(그로 하여금 회중의 장로들을 불러오도록 하라!)

καὶ προσευξάσθωσαν ἐπ’ αὐτὸν.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병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런데 이 단락과 유사하게 2인칭 의문문과 3인칭 명령이 야고보서 3:13에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문학 비평적 한 관점에서 볼 때, 야고보서 3:13이 야고보서 전체의 전환점이자 핵심이 되는 단락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의롭게 행하기’(말과 행동)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와 관

42) ‘아신데톤’(asyndeton)은 ‘단어들, 문장들, 그리고 문단들 사이에서 연결접사들 혹은 접속사들을 수사적 효과를 위해 때때로 생략하는 기법’을 일컫는다. 참조, Ibid., 66.

련된 내용이 야고보서 3:13절 이하에 나오고, 이 내용이 서신 결론 부분과도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 면에서 포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3:13-18에 나타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주제는 서신의 결론 부분 5:13-18에서 ‘기도’에 대한 강조와 연결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를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두 부분의 문학적 연결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단락에 나타나는 모음 소리들을 주목해 보면, 단어,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의 반복을 통해 강력한 ‘음성효과’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성 효과’는 실제 크게 편지를 읽는 환경이나 편지가 ‘구연되는’(performed) 환경에서 청중들에게 수사적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특별히 이러한 의문문과 명령법의 사용은 청중들의 인식 및 감정 수준을 강도(intensity)면에서 최고조로 이끌어 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감정적 증가는 리듬, 단어, 구 같은 패턴의 반복 및 연설 속도에 의해 초래되고, 인지적 고양은 기도하는 일이 ‘의롭게 말하는 것’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됨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이해될 수 있다.<sup>43)</sup>

#### 2.2.2.2. 야고보서 5:14b-16(단락 B)

야고보서 5:14b-16(단락 B)은 ‘기도’가 어떻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관계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기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희망 잃은 자들(병든 자들)을 구함(5:15a); 2. 죄 용서함을 받음(5:15b). 단락 B는 소단위 단락들 a-b-a'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교차대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교차대구 구조의 중심에 ‘죄를 범함’과 ‘죄가 용서됨’의 이슈들이 위치한다. 그리고 중심 부분 주위에 ‘기도’와 그 효과가 ‘고백’과 그 효과와 함께 병렬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단위 단락 a(aa'-bb')와 a'(abab). 여기에서 병든 자들을 위한 장로들의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다—이것은 윗 단락에서 선지자들의 ‘말하기’와 똑같은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장로들의 기도는 ‘의롭게 말하기’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요약하면, 이 단락에서는 ‘죄 용서’의 주제를 중심에 놓으면서도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수평적 관계성과 관련하여 ‘기도’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야고보서 저자는 논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이전 단위에서 (asyndeton 사용)와 달리 ‘καί polysyndeton’을 사용한다. 그리고 ‘기도’라는

43) 여기에서 ‘기도’는 ‘의롭게 말하기’의 최고봉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 없이 말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friendship) 안에서 말하고 요청하는 것임을 일러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속적인 패턴과 약 5:13-18안의 단락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3:13-18)와 ‘하나님과의 친교’(4:1-10)의 주제들과 문학적 ‘밀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주제를 강조할 목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기도’라는 단어(εὐχή, 5:15)가 같은 의미이면서 다른 형태를 갖는 단어(δέησις, 5:16)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저자가 ‘인내’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 두 개의 다른 분사들을 사용하는 ‘수사학적 기법’을 반복하는 점과 상통한다: μακροθυμῶν(5:7)과 ὑπομείναντας(5:11). 요약하면, 저자는 이러한 수사학적 장치들을 운용하면서 이들이 수반하는 ‘음성 효과’들까지 동원하여 청중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된다.

### 2.2.2.3. 야고보서 5:17-18(단락 B')

야고보서 5:17-18(단락 B')에서 저자는 ‘기도(수직적)와 그것의 효력(수평적)’이라는 주제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엘리야의 기도는 서로 병행인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a(a-b-c)-b(a'-b'-c'). 비를 그치게 해 달라는 뜨거운 기도는(a) 한 분명한 답을 얻는다. 즉, 비가 그치게 되는데(b)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c). 엘리야가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a'), 땅은 하늘로부터 비를 받아서(b') 결국 열매를 산출하게 된다(c'). 이러한 병행 구조는 ‘기도와 그 효력’이란 주제의 강조에 기여한다.

청중을 향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야고보서 저자는 몇 가지 수사학적 장치를 동원하는데 그것들은 각각 ‘음성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폴리신데톤’(polysyndeton)이 야고보서 5:17-18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는 대등 접속사 καί를 네 차례나 쓰고 있다.<sup>44)</sup> 이에 더하여, 땅과 비의 그림 이미지가 다시 나타나고(5:17) 땅은 하늘로부터 오는 비를 통해 궁극적으로 열매를 산출한다. 이것은 또한 야고보서 5:7에서의 그림 이미지와 상응한다.<sup>45)</sup> 또한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종종 ‘땅’이라는 단어를 그의 논지를 지지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점이다: τῆς γῆς(5:7), τὴν γῆν(5:12), 그리고 ἡ γῆ(5:18).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성과 그것의 공동체를 향한 효력에 대한 강조

44) 네 개의 καί를 사용하는 ‘폴리신데톤’은 약 5:14b-16에 나타나고, 다섯 개를 사용하는 ‘폴리신데톤’은 약 5:17-18에서 사용되고 있다. 두 단위 단락들은 모두 ‘기도와 그 효력’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 3:1-12와 약 4:7-10에서도 유사한 ‘폴리신데톤’이 사용되었던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 부분들에서 야고보서 저자는 ‘의롭게 말하기’와 ‘하나님과의 친교’를 강조한 바 있었다. 저자는 종종 이러한 ‘폴리신데톤’을 강조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약 5:7에서는 농부가 소중한 열매를 기다리는 이미지가 뚜렷한 반면에, 약 5:18에서는 이와 유사한 땅, 비, 그리고 수확이라는 이미지 하에서 좋은 열매를 산출해 내는 이미지가 강조되어 나타난다.

(단락 B와 B')는 야고보서 5:19-20(단락 A')에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수평적 관계성으로 옮겨 간다. 즉 강조점이 진리로부터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 2.2.2.4. 야고보서 5:19-20(단락 A')

서신 전체의 마지막 단위 단락(5:19-20, 단락 A')에서 저자는 청중들을 향한 그의 궁극적 관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서신 안의 모든 앞선 담화들에서도 일치되는 방식으로 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진실로 청중들이 한 ‘집합적 공동체’로서 진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한 사람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작은 사건이 엄청나게 큰 효과—허다한 죄를 덮는 것—를 거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진리로부터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칭찬한다.

야고보서 5:19-20는 두 입장들이 서로 대조되는 각각의 ‘반제적 짝들’(antithetical pairings)을 보여준다: ὁ ἐπιστρέψας ἀληθείας, ἐπιστρέψη, σώσει와 ἁμαρτωλὸν, θανάτου, πλανηθη.<sup>46)</sup> 이 ‘반제적 짝들’은 서신을 쓴 저자의 궁극적 목적을 보여주는 데에 기여한다. 즉 현재 억압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집합적 청중’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방황’으로부터도 그들을 ‘구해 내는’ 것이 서신의 궁극적 목적이다. 저자는 이러한 수사학적 장치들을 사용하며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이러한 것들은 ‘파토스’적 측면의 진작을 통해 청중의 집중을 이끌어 내면서 효과적으로 서신을 결론짓는 데 공헌한다.<sup>47)</sup>

46)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 예리한 대조점들과 반제적 짝들이 편만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부자와 가난한 자’(1:2-12; 2:1-11; 2:14-16; 4:13-5:6), 단물과 쓴물(3:1-12), 위로부터의 지혜와 땅의 지혜(3:13-18),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교와 세상과의 친교(4:1-10). 벤트랜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야고보서는 실제적이고 분명한 대조, 역설, 반대, 수수께끼, 그리고 반제에 있어서 도입 부분부터 결론 부분의 단어들에 이르기까지 풍성하다.” 참조, Ernst R. Wendland, “The Drama of James: The oral performance of a NT epistle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ors, with special reference to James 2:14-26”, 22.

47) ‘파토스’는 헬라어 παθος(감정, 열정)의 국어 음역이다. 데이빗 아우니(David E. Aun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파토스는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인위적인 수사적 입증방법’(artificial rhetorical proofs)의 세 유형 중 하나였다. 다른 두 가지는 ‘품위’ ‘권위’를 나타내는 ‘에토스’와 ‘논리’ ‘논증’을 가리키는 ‘로고스’이다 ... 일반적으로 ‘에토스’와 ‘파토스’가 더 이상은 ‘인벤션’(invention) 범주 안에 독립적 개념으로서 놓이지 않는다. 그러나 ‘에토스’는 주로 연설의 도입부와 관련이 있고 ‘파토스’는 맺음말 부분과 더욱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참조, David E. Aune,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New Testament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and Rhetoric*, 339-340.

### 3. 결론

이상의 야고보서 5:7-20에 대한 ‘위로부터 아래로’(top-down) 방식의 ‘담화 분석’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야고보서를 ‘과편적인’ 명언 모음집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서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고는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호 엮임’의 문학적 특성을 지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논지를 전개해 간다는 점을 밝히려 노력했는데 이점이 보다 분명해졌기를 바란다. 특별히 서신의 논지가 진행되어 나갈 때 각 단락마다 내부적으로 교차대구 기법 혹은 병행기법 등을 통해 ‘문학적 통합성’(integrity)을 이루고 있는 점들을 자주 지적했다. 특히 야고보서 5:7-20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서는 이점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며 이 단락이 갖는 ‘문학적 통합성’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서신 전체를 볼 때 도입 부분과 결론 부분이 상응하는 점과 논지가 전개되면서 전환점이 되는 핵심 단락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전환 및 핵심 단락’을 기초로 논지가 결론 부분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주요 관심 부분인 야고보서 5:7-20 단락이 자체적인 문학적 통합성 뿐 아니라 이전 담화들과의 다양한 연결점들을 갖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부분이 결론적 담화로서 갖는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했다. 이에 더하여, 간헐적으로 제시한 ‘음성 효과’에 대한 분석은 비록 부분 부분에 그친 한계가 있지만, 야고보서 본문이 갖는 한 중요한 특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야고보서 안의 다른 본문들이 갖는 다양한 음성 효과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야고보서가 청중 공동체에게 크게 읽혀지거나 혹은 구연되었을 정황을 고려하며 서신을 전체로서(as a whole) 이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서 5:7-20에서 서신을 쓰는 궁극적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즉, 야고보서의 결론 단락은, ‘흠어진 열두 지파’라는 ‘집합적 공동체’로서의 야고보서 청중들에게 ‘부자’들에 의해 초래된 ‘억압적’ 상황에서 ‘인내로 견디어 내라!’고 하는 저자의 권고를 뚜렷하게 담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수평적 관계성을 평화롭게 견지해 가면서 ‘인내의 실천’을 통해 현 상황을 이겨내고, 공동체를 이러한 기반 위에 지속적으로 세워나가게 하려는 저자의 서신 작성 목적을 결론 부분에서 읽어 낼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교차대구 기법, 병행 기법, 음성 효과, 견디어 내라!, 야고보서.  
chiasmus, parallelism, sound effects, patience, the Letter of James.

(투고 일자: 2017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7년 9월 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이승호, 『야고보서』,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 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 이승호, “야고보서에 나타난 교회의 세속성 문제”, 『신약논단』 21:1 (2014), 233-265.
- Aune, David E.,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New Testament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and Rhetoric*,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Black, David A.,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5.
- Cheung, Luke L., *The Genre, Composition and Hermeneutics of James*, Paternoster Biblical and Theological Monographs, Carlisle; Waynesboro, GA: Paternoster Press, 2003.
- Davids, Peter H., *The Epistle of Jam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MI: Eerdmans, 1982.
- Dibelius, Martin, *James: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James*, Hermeneia,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76.
- Green, Joel B., “Discourse Analysi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Joel B. Green ed., *Hearing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175-196.
- Hartin, Patrick J., *James*, Sacra Pagina 14,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3.
- Harvey, John D., *Listening to the Text: Oral Patterning in Paul’s Letter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
- Johnson, Luke T., *The Letter of James*, Anchor Bible 37A, New York: Doubleday, 1995.
- Lanham, Richard A., *A Handlist of Rhetorical Terms: A Guide for Students of English Literatur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Levinsohn, Stephen H., “Some Constraints on Discourse Development in the Pastoral Epistles”, Stanley E. Porter and Jeffrey T. Reed, eds., *Discourse Analysis and the New Testament: Approaches and Results*, JSNT Supplement Series 17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316-333.
- Reed, Jeffrey T., “Identifying Theme in the New Testament: Insights from Discourse Analysis”, Stanley E. Porter and D. A. Carson, eds., *Discourse Analysis and Other Topics in Biblical Greek*, JSNT Supplement Series 11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5-101.
- Rhoads, David M., “The Letter of James: Friend of God”,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25 (1998), 473-486.
- Ropes, James 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St. James*, ICC, Edinburgh: T.&T. Clark, 1954.
- Taylor, Mark E., and Guthrie, George H., “The Structure of James”, *CBQ* 68:4 (2006), 681-705.
- Tollefson, Kenneth D., “The Epistle of James as Dialectical Discourse”, *Biblical Theology Bulletin* 27 (1997), 62-69.
- Wall, Robert W., *Community of the Wise: The Letter of James, The New Testament in Context*,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7.
- Wendland, Ernst R., “The Drama of James: The oral performance of a NT epistle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ors, with special reference to James 2:14-26”, Sibiu, Romania: the 62nd Meeting of the SNTS, 2007.7.31.-8.3., 1-52.



<Abstract>

**Be Patient While Maintaining Divine and Human Relationships:  
A Discourse Analysis of James 5:7-20**

Ji-Woon Yoo  
(Myongji University)

The Letter of James needs to be understood as a whole instead of being read in a fragmentary way. For a long time, James has been treated as an anthology that retains little literary coherence or integrity in itself. Recently, however, New Testament scholars not only have pointed out problems on this matter but also effectively argued that James has literary integrity. By exploring rhetorical devices such as chiasmus, parallelism, and sound effects prevalent throughout the letter, the author demonstrates that James retains a clearly purposed but not deductively unfolded argumentation. In a macro approach to the Letter of James, it is argued that James moves the argument from the theme of endurance (introduction) where he emphasizes receiving the implanted word with meekness to be “perfect” to those of speaking and doing (2:1-3:12). Then he moves to a transitional and core section (3:13-4:10), focusing on wisdom from above and friendship with God. James implies that one can speak and act in a righteous way through receiving wisdom from above and having friendship with God. This transitional and core section becomes a solid foundation alongside another important *inclusio* (4:6-5:6) to advance the argument toward the end of the letter. Particularly, James 4:6 plays a significant role in foreshadowing the following themes: excoriating the rich (4:13-5:6) and exhorting the audience (5:7-20). In an extension of this interwoven but purposefully advanced discourse, James 5:7-20 appears as the concluding section of the letter. Employing a discourse analysis of the Letter of James, the author demonstrates that James 5:7-20 shows a clear purpose of the letter, which is of integrity as a discourse in itself and of considerable coherence with the preceding discourses. The author argues that in this concluding part of the letter, James exhorts the audience oppressed by “the rich” to be patient while keeping divine relationship with God and peaceful relationship with community members.

<부록 1> 야고보서 5:7-12의 문학적 구조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 인내하라	a (p)	a	A (인내하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b (f)			
농부가 기다리는 것을 보라!	a (p)	b		
땅으로부터 소중한 열매가 맺히기를	b (f)			
그것에 대해 인내하면서,	a (p)	b'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b (f)			
너희는 또한 인내하라! 너희 마음을 설정하라!	a (p)	a'		
왜냐하면 주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이다	b (f)			
형제자매들이 서로서로 불평하지 말라				B (이웃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말라)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라!				
형제자매들이 모범으로 삼으라!		a	A' (인내)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a			
예언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b			
보라! 우리는 인내한 사람들을 복되다고 부른다	a			b
너희는 옴의 인내를 들었다	b			
너희는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다	b'			
곧 주는 인자와 사랑이 넘치신 분이시라는 것이다	a'			
나의 형제자매들이 무엇보다도,		a	B' (자신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말고,	a			
혹은 땅을 두고도 말고,	b			
혹은 다른 어떤 서약으로도 말라	c			
오직 너희의 '예'는 '예'가 되게 하고,	a'			b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b'			
너희가 심판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c'			

\*AA' = 인내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BB' = '이탈'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말라)

\*p = 현재

\*f = 미래

<부록 2> 야고보서 5:13-20의 문학적 구조

너희 중에 누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a	a	A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b		
기쁨 가운데 있는 누가 있느냐?	a	b	
그로 하여금 찬양을 드리게 하라!	b		
너희 중에 누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느냐?	a	a'	
그로 하여금 회중의 장로들을 불러오도록 하라!	b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병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a	a	B
주의 이름으로 올리브기름을 바르면서	a'		
믿음의 기도는 낙심한 사람을 구원할 것이고	b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b'		
만일 어느 누가 죄를 범한다 해도,	a	b	
그것이 그를 위해 용서될 것이다.	b		
그러므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a	a'	
너희가 치유 받을 수 있도록	b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a'		
강력하고 효력이 있다.	b'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고		a	B'
그는 비가 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했다.	a		
그리고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b		
지상에 3년 6개월 동안	c	b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했다.	a'		
그리고는 하늘이 비를 주었고	b'		
땅은 열매를 산출했다.	c'		
나의 형제자매들아,	a	a	A'
너희 중에 어느 누가 진리로부터 배회하게 되고,	b		
누가 그를 (진리로) 되돌아오게 한다면,	c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d	b	
한 죄인을 그의 방황으로부터 돌아오게 한 사람은	c'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b'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라는 것을.	a'		